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늘
노래하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80년대 민중가요의
'아이콘'
윤선애 씨를 만나다

글 · 김미영 <한겨레> 기자/kimmy@hani.co.kr



독재정권의 서늘 아래서 민주화를 갈망했던 그 시절,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던 이가 있다. 가녀린 체구, 귀엽고 감쪽한 외모에 걸맞게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그날은 오리라 자유의 녀트로 살아 벗이여 고이가소서 그대 뒤를 따르리니 그날은 오리라...”로 시작되는 노래 <벗이여 해방이 온다>를 정성껏 부르던 윤선애(47)씨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80년대 민중가요의 아이콘’으로 기억될 정도로 그 시대를 함께 했던 젊은 청년들의 뇌리 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는 이름이다. 그런데 지난 25년 동안 그는 정작 ‘새벽’에서 함께 노래를 불렀던 안치환 씨 등처럼 가수로서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윤선애 씨를 인터뷰하게 된 건 인간적(?)인 호기심이 순수하게 발동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천여 명의 인터넷 팬카페(cafe.naver.com/yoonsenae) 회원들이 ‘윤선애 공연 추진단’을 만들어 십시일반 자비를 모아 마련한 18년만의 단독공연 ‘윤선애씨, 어디 가세요?’ 2 이후 좀처럼 그가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그와의 인터뷰는 지난달 16일 사당에 있는 한 카페에서 진행됐다.

“3년 전부터 포크음악의 산증인 김의철 선생과 노래 작업”
지금도 무대에 서면 부담되고 떨려...준비 안 된 노래, 하고 싶지 않아

가장 먼저 근황을 물었다. “공연은 예전부터 그랬듯 그리 많지 않아요. 윤이 좋게도 청개구리 노래 모임을 주도했고 양희은, 송창식 등과 음악 작업을 했던 포크음악의 산증인 김의철 선생님을 만나 3년째 노래 연습, 공연, 음반작업 등을 하고 있어요. 그 결과물이 2009년 낸 <윤선애, 김의철을 만나다...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이전과는 다른 저와 김의철 선생님이 추구하는 음악의 색깔을 담은 음반인 셈이지요. 제 목소리와 김의철 선생님의 기타 연주로만 이뤄진 소박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곡으로 구성된 음반입니다.”

지난 3년간은 미래를 위한 준비기였다고 감안하더라도 사실 가수 25년차 치고는 그동안 그의 공백기가 너무도 길었다. 1993년 ‘새벽’ 공연 <러시아에 관한 명상>을 마지막으로 그가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다. 군부독재가 종식되고 합법적인 민주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일까?

“공백기가 컸던 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메아리’ ‘새벽’ 등에서 함께 활동했던 이들이 뿔뿔이 흩어진 상황에서 제가 설 자리를 찾지 못한 셈이지요. 무슨 노래를 해야 할지, 어떤 노래를 해야 할지, 어떤 노래를 만들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까요? 또 제가 대중가수도 아닌데다 직접 음악을 만들고, 직접 기타 연주를 하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20여 년 전처럼 <벗이여 해방이 온다> <그날이 오면> <민주> 같은 노래를 부르기도 멋쩍잖아요.”

대학 입학 뒤 노래패 ‘메아리’ 공연 뒤 곧바로 가입
선배의 제안으로 ‘새벽’ 가입하면서 가수활동 본격화

대중과의 만남은 뜸했지만, ‘노래’에 대한 그의 욕구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 어릴 적부터 동네에서 ‘노래 잘 하는 아이’로 불렸던 그는 늘 ‘모범생이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왔다. 그런 그에게 노래 부르는 일은 일종의 해방구나 마찬가지로였다. 무대에 설 때마다 부담스럽고 떨리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지만 그때만큼 행복했고 즐거웠고 살아있

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다.

“대학(서울대 지구과학교육학과)에 입학한 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노래패 ‘메아리’ 공연을 봤어요. 시원하면서도 친숙하게 와 닿았어요. ‘이런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생각에 주저 없이 다음날 바로 가입을 했지요. 음악을 너무 좋아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노래를 많이 들었던 것도 아니고 음감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다만 많은 사람들이 제 목소리가 좋다고 칭찬했었으니까요.”

그런데 당시 환경에서 그는 노래만 부를 수 없었다. 민주화를 외치는 시위와



집회 현장에 나가야 했고 그래야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 그것이 그에게는 버거운 짐으로 다가왔다. 비합리적이고 모순된 사회가 학생운동을 통해 시정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동안 모범생으로 살아왔고 교사가 되려고 마음먹은 그에게 집회와 시위 현장에 나가야 하는 일들은 큰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2학년 때 메아리를 탈퇴했다. 그럼에도 노래를 향한 그의 열망은 꺾을 수 없었고 선배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새벽’이라는 노래패에 합류하게 된다.

“비합리적이고, 모순된 사회가 제가 하는 학생운동을 통해 시정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음정도 안 맞고 했는데 그 시대 상황에서 제 목소리를 원했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제 존재를 기억하시니 감사할 따름이지요.”

대학 졸업 후 과학교사로 3년간 근무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 포기 못해 과감히 사표 던져

그가 원하던 대로 그는 대학 졸업 후 과학교사로 임용된다. 그러면서도 ‘새벽’ 공연 일정이 잡힐 때마다 빠지지 않고 달려 나갔다. 부산을 비롯해 지방 공연을 하면서 학교 수업을 병행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옹지 못한 일임을 알면서도 끝내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1년 휴직계를 얻어 공연을 다니기에 이르렀고, 그 일 때문에 결국 사직서를 내야 했다.

“3년 반 정도 교사생활을 한 것 같아요. 수업을 하면서 노래는 절대 못하겠다 싶었어요. ‘새벽’ 활동을 하면서 노래에 대한 애정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였거든요. 더구나 92년도에는 <윤선애씨, 어디 가세요?> 공연을 성공적으로 끝냈을 때이기도 하구요. 잡지, 신문에 기사도 제법 났고, 이틀 동안 3회 공연을 했는데 매번 공연장이 가득 찰 정도로 입소문도 났고요.”

하지만 ‘민중가수’라는 꼬리표를 달았던 그가 ‘대중가수’로 자리매김하는 일은 의욕이나 마음처럼 쉽지 않았다. 더구나 그의 든든한 후원군이었던 ‘새벽’마저 해체되고, 민주화가 서서히 진행되면서 그의 입지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일단 그와 함께 노래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는 서서히 지쳐갔다.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생계를 꾸려나갔고 간간히 그를 찾는 무대가 생길 때 노래를 하는 것이 전부였다. 좀처럼 가수로서의 전환점은 열리지 않았다. 공백기가 길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00년도부터 전통음악의 갈래인 정가 공부 매진 나를 돌아보며 타인의 처지 이해하는 경지에 도달

그런 그의 돌파구는 공교롭게도 또 음악이었다. 전통음악의 갈래인 ‘정가’. 불현듯 선배 한 분이 ‘정가 공부를 해보라’고 그에게 제안했고, 국악인 강권순 씨한테 10년 동안 정가를 사사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 과정도 수료했다.

“무엇보다 소리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고 호흡을 가다듬게 해주었어요. 물론 무대에 오르는 것이 여전히 힘들었지만 말이지요. 그러다 김의철 선생님을 만났고, 지금은 김 선생님과 함께 윤선애·김의철 음악, 한국적 포크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만들려고 하는 중이구요. 3년 동안 연습을 해도 사람들이 있으면 호흡이 자연스럽게 못한 게 과제인데 그래도 노래를 계속 하고 싶어요.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는 “더 이상 준비 안 된 노래는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제는 주위 사람의 제안에 떠밀려서, 막연히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불러야 하는 노래는 하고 싶지 않다고도 했다. 공연 섭외가 들어와도 맞지 않는 공연은 정중히 거절하는 까닭은 이제는 25년차 ‘가수 윤선애’만의 색깔을 내야 할 때라고 믿기 때문이다.

“지금은 제 스스로한테 천착해 들어가는 중이에요.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정서에 공감하고 뭘 좋아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정리하고 있어요. 예전만큼 사회 돌아가는 것이나 현안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나를 들여다보면서 나를 둘러싼 이웃과 사회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는 또 말을 이어갔다. “대중가수, 가요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음악과 가수도 한줄기 정도는 남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생각으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가수로 남고 싶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어요. 그냥 노래하는 게 좋으니까 노래를 계속 할 수 있는 무대와 기회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만족합니다.”

25년 전 그의 목소리에 뛰는 가슴을 주체하지 못했던 이 땅의 젊은 이들, 지금껏 그를 기억하고 있는 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이것이 아닐까?

“나의 어린 시절은 무의식 속에 오롯이 남아
오늘 이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동산에 올라 발아래 펼쳐진 들판을 바라보며

깊은 호흡으로 쉬기보다
산 너머 낮은 세상을 동경했던 어린
소녀는 이제 다 자라 어른이 되어야 하는데...

어린 시절의 나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
며 안아주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라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을 때
까지 여러분과 같은 꿈을 꾸며 노래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서

